

‘영농형 태양광’ 조기 정착 머리 맞댄다

道농기원·전력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 국제심포지엄
농업 외 新소득원 개발 모색...기술개발 연구 확대 추진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에 영농형 태양광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1일 “한전 전력연구원(원장 김숙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과 공동으로 최근 한국전력본사 대강당에서 신재생에너지(태양광)를 활용한 농업에너지 자립과 새로운 농업의 소득원 개발을 모색하기 위한 국

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독일 프라운호퍼사와 일본 치바에코에너지사, 중국의 GCL사 등 국내외 연구자 및 국내 영농형 태양광 관련 단체, 농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해 7개 주제발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자로 나선 독일의 프라운호퍼사 강진숙 연구원은 독일 APV의 최근 연구 및 산업개발 발표를 통해 “급격한 기온상승

에 따른 차광효과로 영농형 태양광 하부에서 작물생산성이 향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치바에코에너지사의 마가미 박사는 “일본 영농형 태양광의 가장 큰 목표는 농업인 소득증대 및 휴경농지 활용 증대로 농업의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남농업기술원 김희곤 연구관은 ‘전남도 영농형 태양광 연구 성과와 방향’ 발표에서 영농형태양광 하부에서 일사량 부족으로 작물 생육에 지장을 주는 구조물 개선 방안을 제시해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아울러 강진숙 연구원 등 국의 연사들과

함께 순천 소재 영농형 태양광 관련업체인 파루본사와 보성에 있는 영농형 태양광 현지 시설을 둘러보는 현장 워크숍을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성일 원장은 “전남농업기술원은 ‘100kw급 농가보급형 영농형태양광 표준 시스템 개발’과 ‘태양전지모듈 하부경지 농작물 재배기술 개발 및 경제성 분석’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조기에 정착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기술을 교류하는 세미나 등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독일의 프라운호퍼사 강진숙 연구원 등 국외 연사들과 함께 순천과 보성에 위치한 영농형 태양광 관련업체들을 둘러보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워크숍을 진행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제공

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윤창용 연구사는 “경작지에 설치되는 태양광에서 연간 2천만원 수준의 발전소득과 하부에서 작물재배 생산성을 노지의

80%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연간 2천2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외 기관들과 협력해 기술개발과 연구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전남농협, 바나나 아카데미클럽 선진지 견학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강진 지우내 스토리팜(강진군 강진읍 춘전리 소재) 바나나농장에서 전남 관내 바나나 재배농가 및 재배희망자, 지자체 및 시군기술센터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바나나 아카데미클럽’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전남농협 제공

광주농협·고향주부모임, 농촌행복사업 지속

정기이사회 열어 상반기 사업 평가·하반기 계획 심의

광주농협과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회장 김미원)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행복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광주농협은 1일 “전남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광주시지회 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분기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농산물 소비부진과 과잉생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와 농업인행복콜센터 현장

지원 사업 등 농촌행복사업을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사회에서는 2019년 상반기사업을 평가하고 하반기 계획(안)을 심의했으며 특히 어려운 농업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번 여름휴가 기간에는 많은 분들이 농촌마을을 찾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농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수확기 부족한 농촌현장을 찾아 일손 돕기를 실천하고 농산물 소비촉진활동과 도농교류사업, 농산

물직거래구매사업,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업인행복콜센터 현장지원사업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김미원 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고향주부모임 회원들과 함께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써 많은 분들이 농촌을 찾도록 회원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주부모임은 조합동창회·시군지부·시도지회·중앙회 등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단체다. 이 가운데 광주시지회는 10개 분회와 회원 6천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600여명이 적극 활동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농협전남노조, 도내 고교생 수도권대학 탐방캠프

농협전남노동조합(위원장 안종팔)은 31일부터 2박3일 동안 전남도교육청에서 선발한 농촌지역 고교 1학년생 42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소재 명문대학 탐방캠프를 실시했다.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의 후원으로 실시한 이번 캠프는 열악한 농촌환경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들에게 미리 가보는 대학탐방을 통해 각자의 목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 서울의 역사·문화체험을 병행해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처음만난 다른 학교 또래친구들과 어우러짐으로 사고성과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캠프는 행사 첫날 서울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환영식을 시작으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탐방과 용산전쟁기념관 및 농업박물관 견학, 레크리에이션, 문화공연 관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안종팔 위원장은 “농업·농촌을 되살

리기 위한 노력에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최근 도·농간 교육격차마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지역 우수 학생들에게 꿈과 도전의식을 키워주기 위해 이번 기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는 전국 농협 임직원들의 자발적 성금과 농협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전남농협,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설명회

농협전남지역본부와 산이농협(조합장 김애수)은 최근 산이농협 회의실에서 가을·겨울배추 주산지농협 출하농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배추 수급안정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추진됐다. 가을·겨울배추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은 해남·진도군 등 배추 주산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계획물량은 지난해보다 4천t이 증가한 2만4천t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의 채소가격안정제 추진방향, 지자체 사업비 편성계획 및 농협의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은 농협에 계약재배를 약정한 농가에 대해 평년가격의 80% 수준인 보전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또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김석기 본부장은 “채소가격안정제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배추의 수급안정은 물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전남 갯벌자원 쟁쟁어 15만 마리 방류

해양수산과학원, 갯벌 생태 복원·수산자원 조성 기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원장 오광남)은 갯벌 수산자원 증가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최근 보성 벌교 호산해역에서 어업인을 초청, 건강한 어린 쟁쟁어 15만 마리를 방류했다.

쟁쟁어는 순천, 보성, 강진, 해남, 신안 등 갯벌에 서식하는 어종이다. 낚시, 맨손어업으로 연간 10억원(25t)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최근 개체 수가 줄어 ‘갯벌의 소고기’

라 불릴 만큼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여름철 보양음식으로 각광받는 쟁쟁어는 주로 탕, 구이, 전골로 많이 요리되면서 미식가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타우린·게르마늄·마그네슘 등 기능성 성분을 다량 함유해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방류한 어린 쟁쟁어는 지난 5~6월 벌교 갯벌에서 성숙한 어미를 포획,

성숙 유도, 인공부화 등 종자 생산 과정을 통해 60일간 관리한 1.5cm 이상 크기의 우량 개체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청정 남도갯벌 생태계 보전과 자원 회복,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2011년 쟁쟁어 인공 종자 생산 기술 개발에 성공, 지금까지 보성장흥지역에 27만8천마리를 방류했다.

오광남 원장은 “전국 갯벌의 42%를 차지하는 전남 갯벌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위해 쟁쟁어를 포함한 지역 특산품종 방류량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갯벌생물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업인 소득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장성 전원주택 토지매매

- * 이제 교통이 최고입니다. *
- 광주에서 15분
- 장성 IC ,장성호(댐) 1분 (국도도로 12m접)
- 최고의 전원주택 / 산새줄음.공기좋음

- ① 150평 - 매가 1억2천만-(주택,뒗밭+주말농장,창고적합)
- ② 200평 - 매가 1억8천만(주택,뒗밭+주말농장,창고적합)
- ③ 300평 - 매가 2억4천만(주택,뒗밭+주말농장,창고적합)

- ① 장성을 옹강리 . 장성댐 옆 (국도도로접합) 1,370평 → 매매가 1억 5천만
- ② 장성을 덕진리 . 잠성댐 위 (도로접합) 500평 → 매매가 2억5천만
- ③ 장성을 남면 . 첨단지구5분 (도로접합) 1,090평 → 매매가 3억5천만
- ④ 담양군 금성면 (메타세라이어부근 도로접) 1,000평 → 매매가 5억

상가 매매 [급매]

- 복구 문흥동 (6층) 아파트 1만세대 위치 (병원,대형학원,한의원,스포츠,기타적합)
- 6차선 도로접 코너변 위치
- 보증금 5천만 월 400만 임대가능

▶ 감정/시세 → 15억
매 가 → 8억

- ① 상가매매 - 상무지구 메가박스 앞 (7층 중 6층) 보 3천 월 150만(임대가능)▶ 매가가 2억8천만 (용1억4천8백)
- ② 첨단지구 10층중10층 (상가,사무실) 보 1천 월50만 (임대가능) ▶ 매가 8천만 (용 3천만)
- ③ 원룸매매 (현대아파트 입구 앞)용봉C1분.전대5분 토지 80평 건 165평 (원룸9개,1.5룸6개)보3천 월수익 500만 ▶매가 7억3천만
- ④ 고시원매매 - 조대 후문 3분 토 79평,건 159평 룸 50개, 월수익 1,000만 예상 ▶ 6억8천만

경매 교육 [기초, 특수전문]

★ 경매교육 특수반 모집★

이제 특수경매만이 큰 수익이 필수있습니다.
(유치권,법정지상권,지분,엔피별)

※ 10억짜리 부동산을 5억에~

경매교육 하면서 (실전)
바로 (수익창출) 합니다.

- 1. 감정가 2~3회 유찰 물건 (절반가격)
- 2. 유치권,지분,법지,개발,리모델링
- ① 초급 실전반 - (기초 +실전)
- ② 중급 실전반- (기초 +실전 + 특별)
-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지분,법지,개발,절반가격)
매주(월, 수, 토) 개강
※ 사무실 쓰면서 전문 직업 하실 분
(책상, 컴퓨터 → 제공 / 주1회 물건분석스터디)